

3세 및 5세 아동의 동사 이름대기  
특성과 어휘다양도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 협동과정  
이 미 현

3세 및 5세 아동의 동사 이름대기  
특성과 어휘다양도와의 관계

지도 서 상 규 교수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6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 협동과정

이 미 현

# 이미현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5년 6월 일

## 감사의 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로 시작했던 지난 2년간은 제 인생에 있어서 만감이 교차하던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에 진정한 SLP로서의 자질을 닦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앞으로 어떠한 시련에 부딪쳐도 SLP로의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리라는 다짐을 해 봅니다. 논문을 쓰는 내내 학자로서의 열정적인 연구자세를 몸소 보여주시며 세심하게 지도해 주신 서상규 교수님, 김향희 교수님, 배소영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논문에 대한 질문들을 성심껏 대답해주신 김민정 선생님, 통계에 도움을 주신 최성희 선생님, 만날 때마다 격려해주신 최재남 선생님, 논문 심사 때마다 꼼꼼히 챙겨주신 박지은 선생님, 이름대기의 선행연구자로서 많은 도움을 주신 김유정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실험에 협조해주신 절제 어린이집, 두툼돌 어린이집, 이솝 어린이집, 동성교회 유치부의 어린이들과 선생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실험을 도와 준 현아, 후배 혜진, 지원과 실험 대상자를 소개해 주신 노은경 선생님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대학원 생활을 행복했던 시간들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함께 한 동기 미숙언니, 연미, 현아, 선우언니, 유정언니, 미영언니, 찬희언니, 지혜, 영임과 선후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학원 생활을 하는 동안 항상 이해하는 마음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기다려 주었던 친구 소영이, 현수, 은경, 현숙, 현정, 효선, 혜욱이, 주미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그 어떠한 희생도 기꺼이 마다하지 않으시고 저를 믿어 주신 아버지와 어머니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논문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지현이, 고 3 수험생이면서도 웃음을 준 수현이, 소중한 어린 시절을 선사해 주시고 항상 기도해 주신 할머니님과 할아버지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이 길로 이끌어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연구자 씬

# 차 례

국문 요약	1
<b>I. 서 론</b>	3
<b>II. 연구대상 및 방법</b>	10
1. 연구대상	10
2. 연구방법	12
가. 검사도구	12
나. 자료 수집	14
다. 자료 분석	15
라. 신뢰도 분석	16
마. 통계 분석	16
<b>III. 결 과</b>	17
1. 동사 이룸대기 특성	17
가. 동사 이룸대기의 오반응 빈도	17
(1) 연령 군에 따른 동사 이룸대기의 오반응 빈도	17
(2) 성별 군에 따른 동사 이룸대기의 오반응 빈도	17
나. 동사 이룸대기의 오류유형	19
(1) 연령 군에 따른 오류유형의 점수 및 출현율	19
(가) 오류유형의 점수	19
(나) 오류유형의 출현율	21

(2) 두 연령 군에서 성별 군에 따른 오류유형 .....	22
2. 동사 이름대기의 오반응 빈도와 어휘다양도간의 상관관계 .....	23
<b>IV. 고찰</b> .....	24
<b>V. 결론</b> .....	28
참고 문헌 .....	29
<부록 1> 이름대기 검사도구 .....	32
<부록 2> 동사 오류분석 기준 .....	33
<부록 3> 발화의 구분원칙 .....	34
<부록 4> 낱말의 구분 원칙 .....	35
<부록 5> 정반응 처리사항 .....	36
Abstract .....	37

## 표 차 례

표 1. 3세 및 5세 집단의 아동수 및 평균생활연령 .....	11
표 2. 검사 어휘목록 .....	12
표 3.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이름대기의 오반응 빈도 .....	18
표 4.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이름대기 오반응 빈도의 차이 .....	18
표 5. 연령에 따른 오류유형의 점수 분포 .....	19
표 6.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오류유형의 차이 .....	20
표 7. 연령에 따른 오류유형의 분산분석 .....	20
표 8. 연령에 따른 오류유형의 출현율 .....	21
표 9. 이름대기 오반응 빈도와 어휘다양도간의 상관관계 .....	23

## 그림 차례

그림 1. 연령에 따른 오류유형의 출현율 .....	21
------------------------------	----



## 국문 요약

### 3세 및 5세 아동의 동사 이름대기 특성과 어휘다양도와의 관계

이름대기는 한 물체와 구체적인 단어를 상황에 적절하게 연결시키는 능력으로 구어산출에 있어서 기본이 된다. 언어장애 아동들은 흔히 이름대기에 문제를 보이기 때문에 정상과 언어장애를 이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름대기는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한국어에서 명사와 마찬가지로 동사는 아동의 언어발달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국내의 연구는 대부분 명사 이름대기에 대한 것이며, 검사어휘의 이해여부를 고려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활연령이 만 3세와 만 5세인 정상아동을 대상으로, 동사 이름대기의 특성을 알아봄으로써, 동사 이름대기의 검사연구에 필요한 실증적인 자료를 얻고자 한다. 또한, 동사 이름대기와 어휘다양도 간의 관계를 살펴, 동사 이름대기의 타당성을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과 성별에 따른 동사 이름대기의 오반응 빈도를 산출하였고, 그 오류유형을 분석하였다. 오반응은 검사어휘의 이해가 가능하였지만, 이름대기에서 오반응한 문항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자발화에서의 어휘다양도를 분석해 동사 이름대기와의 상관정도를 확인하였다.

동사 이름대기의 오반응 빈도, 오류유형에 대한 연령 및 성별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동사 이름대기와 어휘다양도(TNW, NDW, Verb TNW, Verb NDW)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사 이름대기 검사에서 연령에 따라 오반응 빈도가 감소하여, 동사 이름대기 능력이 연령에 따라 증진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총 50문항에서 3세 아동은 평균 13.6개(27.3%), 5세 아동은 9.8개(19.5%)의 오반응을 보였다. 또한, 3세와

5세 두 집단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동사 이름대기에서 이해가 가능한 오류를 NR, DK, 음운적 오류, 구문적 오류, 시각적 오류, 그리고 의미적 오류유형으로 분석하였다. 3세에서 NR, 구문적 오류와 시각적 오류가 유의하게 많이 나타났으며, 3세 및 5세 모두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동사 이름대기에서 오류유형의 전체적인 출현순서를 살펴본 결과, 시각적 오류, 구문적 오류, 의미적 오류, DK, NR, 음운적 오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동사 이름대기의 오반응 빈도와 어휘다양도(TNW, NDW, Verb TNW, Verb NDW)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특히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Verb NDW였으며, 그 다음 TNW, NDW, Verb TNW 순으로 나타나서, 동사 이름대기로 자발화 상의 의미발달 정도를 예측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우리나라 정상아동의 경우, 동사 이름대기의 능력이 연령에 따라 발달함을 알 수 있었고, 성별 간에 이름대기 능력이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시사하였다. 동사 이름대기에서 이해가 가능한 오류는 시각적 오류, 구문적 오류, 의미적 오류가 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동사 이름대기와 어휘다양도간에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나, 동사 이름대기로 자발화의 표현 언어 능력을 예측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

핵심되는 말: 3세, 5세, 동사 이름대기, 오류유형, 어휘다양도

# 3세 및 5세 아동의 동사 이름대기 특성과 어휘다양도와의 관계

<지도교수 서 상 규>

연세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 협동과정

이 미 현

## I. 서 론

이름대기(naming)는 한 물체와 구체적인 단어를 연결 지어 표현하는 언어능력으로,<sup>1</sup> 구어 산출의 기본이 되는 능력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유창하게 표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먼저 이름대기 능력이 습득되어야만 한다.

정상아동은 성장함에 따라 저장과 인출에서 일어나는 변화로 인해 이름대기가 발달한다. 수용어휘력, 즉 낱말을 저장하는 능력은 아동이 성장하면서 새로운 낱말을 어휘사전에 더하고 이미 어휘사전에 있던 낱말은 그 의미를 확장하면서 향상된다. 또한, 낱말인출은 낱말회상을 촉진하는 전략들을 더 빈번히,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그 정확성과 속도가 좋아지면서 향상되며, 결과적으로 낱말인출은 학령기와 청년기 심지어 성인이 되어서까지 꾸준히 발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발달 시기 중 언어처리(language processing)의 한 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하면 이름대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된다.<sup>2</sup>

이름대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 표현 언어능력에 결함이 발생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정상과 언어장애를 구분지어 줄 수 있는 언어

처리의 한 측면으로 연구들이 계속되어 왔는데, 이름대기는 언어발달장애, 학습장애, 읽기장애 또는 실어증 아동이나 성인에게 흔하게 일어나는 현상 중의 하나로 보고되고 있다.<sup>3</sup> 언어습득이나 사용에 있어서 어휘습득 및 사용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처럼 이름대기에 장애를 갖는 아동들은 다른 언어영역에서도 어려움을 갖는 경우가 많다. 낱말찾기 장애는 특히, 지적능력이나 사회성능력, 그리고 말 산출과 관련된 구조적 결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어발달 장애를 보이는 단순 언어장애 아동들에게서 많이 보고되어 왔다.<sup>4</sup>

언어장애 아동들이 이름대기를 어려워하는 원인을 밝히려 연구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German<sup>3</sup>은 낱말찾기 장애를 정보의 저장에서의 문제, 혹은 정보 인출능력의 결함이라고 정의하며, 낱말 인출에서의 문제는 물론 저장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 관점에 의하면, 이름대기 장애는 저장되어 있는 낱말들을 효과적으로 인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아동들의 어휘력이 제한되거나 의미기억 속에 단어들이 잘 표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sup>2,5</sup> 이와 같이 이름대기 장애를 주로 낱말의 저장과 인출의 측면에서 다루고 있을 뿐, 어휘산출 과정의 측면에서 분명하게 설명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어휘를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대기에서 실패한 경우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상태이다. 그러나, 정상아동과 언어장애 아동들은 이해하고 있는 단어에서도 이름대기 오류를 빈번히 보인다. 어휘산출과정의 측면에서, 검사어휘의 이해가 가능하였지만 이름대기에서 실패한 경우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름대기를 수행하기 위해선 의미기억 속의 낱말정보를 찾아내야 하며, 이를 적절한 언어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즉, 어휘산출 과정은 개념화 단계, 형식화 단계, 조음 단계 등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개념화 단계에서는 표현할 대상과 관련된 여러 정보들이 개념적 구조를 형성하게 되며, 아직 언어적 형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둘째, 형식화 단계는 lemmas와 lexeme의 두 체계로 구성된다. 먼저 lemmas 단계에서는 형성된 정보가 의미적이고 구문적으로 특정화되고, 이어 lexeme 단계에서는 lemmas 단계에서 선택된 어휘정보가 형태 및 음운적으로 부호화된다. 마지막으로, 조음단계에서는 이전 과정을 통해 선택된 낱말

이 음성학적이고 조음적으로 프로그램 되어 조음기관을 통해 산출되는 것이다.<sup>6</sup>

이름대기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도구를 이용하면, 아동의 표현 언어능력을 간편하게 평가할 수 있다. 국외에선 이름대기의 연구가 활발하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름대기 검사도구가 개발된 반면, 국내에선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주로 명사 중심의 연구가 진행된 상태이며, 동사 이름대기의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고, 이에 대한 검사도구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다.

김유정<sup>7</sup>은 2-5세 정상아동의 명사 이름대기 특성을 살펴본 결과, 연령에 따라 정반응 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오류유형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기타 오류, 의미적 오류, 시각적 오류, 비연관 오류, 음운적 오류 순으로 출현하였으며, 연령 간에는 오류유형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시각적 오류, 기타 오류보다 의미적 오류가 많은 비율을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김향희 등<sup>8</sup>은 3세와 6세 정상아동을 대상으로 연령에 따른 명사 이름대기 능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이름대기 총점에서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3세 집단에선 남아가 여아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총점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오류유형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3세 집단은 시각적 오류 중 유사오류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6세에 비해 형태적으로 유사한 단어로 대치하는 오류가 많이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6세는 3세에 비해 의미적 연관오류, 의미적 비연관 오류 등의 오류 수가 감소되어 목표어휘를 과대 의미확장을 하거나 연상되는 단어나 혹은 연관성이 없는 단어로 대치하는 특성이 감소되는 것을 보고하여 연령에 따라 오류의 특성도 변화됨을 시사하였다.

아동이 초기 어휘를 습득하는 데 주된 낱말의 유형은 첫 번째로 명사, 두 번째로 동사이다. 3세 아동은 문장에서 85% 정도의 동사를 포함해 사용하며, 동사중심의 문장을 많이 쓰기 시작한다.<sup>9</sup> 따라서, 동사의 발달 특징을 살펴보는 것은 언어 발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국어 용언발달에 관한 연구는 초기 어휘발달의 한 부분으로만 진행되었고, 용언 발달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연구의 대부분은 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세 낱말의 조합이 활발히 일어나는 2세 이후의 용언발달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형편이다.<sup>10</sup>

국내 연구에 의하면, 배소영<sup>11</sup>은 두 돌이 가까워지면서 동사의 표현이 나타나며, 3세엔 이미 서술절을 습득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 동사의 수는 활발한 낱말조합을 예고하는 신호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조진숙<sup>12</sup>은 정상아동 3-6세의 동사 발달특성을 연구했는데, 연령에 따라 산출한 동사 어휘수, 누적 어휘수, 발화당 동사 산출율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하여, 동사가 연령에 따라 아동의 언어 발달지표를 제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동사가 언어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기에, 동사 이름대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정은실<sup>13</sup>은 4, 6세 정상아동을 대상으로 동사의 이름대기 능력을 살펴보았다. 연령에 따라 이름대기의 총점이 증가되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오류유형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4세는 기타오류, 의미적 오류, 시각적 오류, 음운적 오류 순으로 나타났으며, 6세는 의미적 오류, 시각적 오류, 기타 오류, 음운적 오류 순서로 나타나, 선행연구<sup>14</sup>와 일치하였다. 또한, 음운적 오류의 출현이 가장 낮았으며, 음운적 오류보다는 의미적 오류가 더 많이 나타나서, 정상아동은 이름대기 오류가 음운적 처리나 음운표상 과정보다는 주로 어휘-의미적 체계에서 발생한다고 시사하였다.

이름대기 검사는 구조화된 상황에서 측정하는 표준화된 검사도구로, 아동의 실제 언어능력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연스런 상황에서 실제로 아동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언어샘플을 통한 언어분석 방법이 있으며, 이는 표현언어 진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sup>15</sup> 자발적인 언어샘플에서 표현언어 능력을 수치화하여 평가하는 척도엔 발화길이 척도와 어휘다양도 척도 등이 있다.<sup>15</sup>

아동의 자발적인 발화길이를 측정하는 척도로 평균발화길이(Mean Length of Utterance, 이하 MLU)와 평균구문길이(Mean Syntactic Length), 최장발화길이(Upper Bound Length)가 있다. 오래전부터 MLU는 아동의 양적인 언어발달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sup>16</sup> 각 문장 속에 포함된 낱말이나 형태소 수에 대한 평

균을 구해 자발적인 발화길이를 측정하는 척도로, 언어장애아동을 진단하는 기준으로 많이 사용되었다.<sup>17</sup>

일반적으로 아동이 얼마나 다양한 낱말을 사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척도로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은 어휘다양도(Type-Token Ratio, 이하 TTR)이다.<sup>18</sup> 이외, 다른 낱말의 수(Number of Differential Words, 이하 NDW), 총 낱말의 수(Total Number of Words, 이하 TNW) 등이 있다. TTR은 임상현장과 연구 활동에서 아동의 어휘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폭넓게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연구자들은 TTR이 아동의 어휘표현 능력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며, 오히려 TNW나 NDW가 아동들의 어휘능력을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sup>19</sup> Miller<sup>16</sup>는 NDW와 TNW가 생활연령이나 평균발화길이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NDW는 생활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하였고, NDW, MLU 모두에서 연령에 따른 변화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하여, NDW는 의미적 능력을, MLU는 구문적 능력을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Watkins<sup>19</sup>는 단순 언어장애 아동,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정상아동, 그리고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정상아동 등의 세 집단을 대상으로 어휘다양도를 비교하였다. TTR은 세 집단을 구별해내지 못하였고, 50-100 언어표본 또는 100-200 언어표본 모두에서 NDW는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정상아동들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TTR보다는 NDW가 아동의 어휘발달에 더 민감한 척도로 쓰일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국내 연구로 이희정<sup>15</sup>은 언어발달지체 집단과 언어연령이 동일한 정상 아동집단, 생활연령이 동일한 정상아동 집단을 대상으로 발화길이와 어휘다양도를 연구하였다. MLU는 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어휘다양도 척도에 따른 결과에선 TTR은 세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NDW와 TNW는 세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김영태 등<sup>20</sup>은 자폐아동과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정상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TNW, NDW 등의 어휘다양도를 비교한 결과, NDW는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서 TNW보다 더 민감한 척도임을 보고하였다. 즉, 정상아동과 자폐아동은 동사 TNW와 조사 TNW에서는 유의한 차이

가 있었으나, 명사 TNW와 수식언 TNW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또한, 명사 NDW, 조사 NDW와 수식언 NDW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반면, 동사 NDW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여, 정상아동과 자폐아동을 비교 시, 동사 NDW가 민감한 척도임을 시사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한다면, 동사는 언어발달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으며, 동사 이름대기로 아동의 언어발달 수준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세와 5세를 대상으로 검사어휘의 이해가 가능하였지만 이름대기에서 실패한 문항에 대한 동사 이름대기의 특성을 알아보려고 한다. 첫째, 연령과 성별에 따른 동사 이름대기의 오반응 빈도를 확인하고, 오류유형을 알아봄으로써, 어휘 산출과정 중 어느 부분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둘째, 동사 이름대기의 오반응 빈도와 어휘다양도 간의 상관관계를 밝혀, 동사 이름대기의 타당성 여부를 알아보려고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3세와 5세 아동의 동사 이름대기의 특성**

가. 동사 이름대기의 오반응 빈도

- (1) 연령 군에 따른 동사 이름대기 오반응 빈도의 차이
- (2) 두 연령 군에서 성별 군에 따른 동사 이름대기 오반응 빈도의 차이

나. 동사 이름대기의 오류유형

- (1) 연령 군에 따른 오류유형의 점수 및 출현율
- (2) 두 연령 군에서 성별 군에 따른 오류유형의 차이

### **2. 동사 이름대기의 오반응 빈도와 어휘 다양도(TNW, NDW, Verb TNW, Verb NDW)간의 상관관계**

## II. 연구 대상 및 방법

### 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만 3세와 만 5세인 정상아동 각각 30명, 총 60명(남:여=1:1)으로 구성하였다. 한국어에서 동사의 출현시기가 대략 2세이지만,<sup>11</sup> 3세쯤에 이르러서야 자음의 50% 정도를 올바르게 발음할 수 있으며, 구어에서 80% 정도의 명료도를 나타낸다.<sup>21</sup> 또한, 아동의 어휘력은 연령에 따라 계속 발달하지만 3세 초반에 가장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진 후,<sup>21,22</sup> 3세 6개월을 전후로 어휘발달의 속도가 더뎈다.<sup>23</sup> 그리고, 어휘의 발달양상을 살펴보면, 첫 단어를 사용하는 시기의 유아어에서 명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100%에 이르다가 점차 감소되어 3세 6개월경엔 45.5%에 이르고, 4세에는 45.0%로 감소되다가 그 이후엔 증가된다. 하지만, 명사와 달리 동사는 3세까지 사용비율이 급속히 증가되다가 4세에 급격히 감소되며, 5세에 다소 비율이 증가되었다가 그 이후엔 감소한다.<sup>22</sup> 이러한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동사습득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만 3세와 만 5세인 정상아동을 대상자로 구성하였다.

정상아동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부모나 어린이집 교사에 의해 정상 발달하는 아동이라고 보고되고, 아동의 언어발달 검사 중 하나인 취학 전 아동의 수용 언어 및 표현 언어척도(PRES)<sup>24</sup>의 표현부분만 실시하여 정상범주 내에 속하는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부모나 교사를 통해 조음에 문제를 보이지 않는지 확인하였고,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대상자에 포함하였다.

표 1. 3세 및 5세 집단의 아동수 및 평균생활연령

(단위: 개월)

연령	남(n=15)	여(n=15)	계
3세	42.80±3.53	42.67±3.35	42.73±3.38
5세	64.00±3.12	65.53±3.52	64.77±3.36

값은 평균±표준편차

## 2. 연구 방법

### 가. 검사도구

#### (1) 이름대기 검사

이름대기 검사는 선행연구<sup>5</sup>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그림 이름대기 과제를 이용해 실시하였다. 검사어휘는 선행연구<sup>13</sup>에서 사용했던 검사어휘를 참고로 하였다. 선행연구에선 검사도구의 문항수가 총 60개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10개 문항을 제외하였다. 첫째, ‘연설하다, 연주하다, 세차하다, 꺾다’ 등은 난이도가 매우 높았으며, 둘째, ‘읽다, 사고나다, 말리다’ 등은 난이도가 높았으며, 셋째, ‘깨다, 숨다, 부딪히다’ 등은 변별도가 낮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검사항목은 총 50개로, Bayesian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문항변별도가 높았고 난이도가 낮았다. 난이도 평균은 -1.3, 변별도 평균은 1.1로 나타났으며, 검사어휘 목록은 다음(표 2, 부록 1)과 같다.

표 2. 검사 어휘목록

1. 감다	14.누르다	27.싸우다	40.치다
2. 고치다	15.눅다	28.쌓다	41.타다
3. 그리다	16.뒹다	29.앉다	42.풀다
4. 깎다	17.들다	30.올라가다	43.악수하다
5. 꽃다	18.떨어뜨리다	31.올다	44.재다
6. 바느질하다(꿌매다)	19.약속하다	32.일어나다	45.다리다/다림질하다
7. 끊어지다	20.만들다	33.잡히다	46.당기다
8. 끼다	21.먹다	34.자다	47.뭍다
9. 날다	22.바르다	35.잡다	48.주사맞다
10.내려가다	23.불다	36.줍다	49.진찰하다
11.내리다	24.붙이다	37.찍다	50.짜다
12.놀다	25.뽀뽀하다	38.찢다	
13.(올려/내려)놓다	26.수영하다	39.청소하다	

## (2) 이해 검사

아동이 이름대기에 실패하였을 경우, 해당 낱말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낱말인출에서의 문제 때문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이해력 검사를 실시하였다.<sup>25</sup> 이해력 검사는 그림어휘력 검사<sup>26</sup>의 형식과 동일한 형태로, 네 개의 그림 중에서 검사자가 제시한 낱말에 해당하는 그림을 지적하는 것이었다. 낱말표현 검사의 모든 항목에 대해서 이해검사를 준비하였으며, 목표어를 제외한 3개의 보기 항목은 의미적으로 유사한 낱말, 음운적으로 유사한 낱말, 그리고 무관한 낱말로 구성하였다.

## (3) 글자가 없는 그림책

자발화 수집을 위해 글자가 없는 그림책을 사용했으며, 선행연구<sup>27</sup>를 참고로 성별 군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중성적인 내용의 그림책<sup>28</sup>을 선정하였다. 그림책의 선정기준은 홍경은<sup>27</sup>이 제시한 다음의 기준을 참고로 하였다. 첫째, 잘 짜여진 구조(잘 묘사된 등장인물과 명확한 배경, 분명한 주제, 주인공의 목표성취와 결과를 이끌어 주는 줄거리 포함)로 안정된 구성을 갖는다. 둘째, 유아에게 친숙한 주인공과 소재를 다루고 있다. 셋째, 유아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준다. 넷째, 유아에게 흥미를 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그림만 보고 이야기 줄거리를 알 수 있다.

## 나. 자료 수집

서울 지역의 어린이집과 교회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먼저, 선별검사를 통해 선별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름대기 검사와 이해검사를 차례로 실시하였다. 독립되고 조용한 공간에서 아동과 관계형성을 위해 상호작용 시간을 갖은 후, 검사를 진행하였다.

이름대기 검사를 먼저 실시하였다. 연습문항을 먼저 실시하여 아동에게 검사 방법을 이해시킨 후, 검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아동에게 목표그림을 가리키며 ‘○○가 뭐 해?’, ‘○○가 어떻게 해?’ 등의 질문을 하여 대답하도록 하였다. 이름대기 검사가 끝난 후, 아동이 이름대기에 오류를 보인 검사문항에 대해서만 이해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는 이해검사 그림자료를 보여주면서 검사자가 목표어를 구두로 제시하면, 아동이 해당 그림을 지적하게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름대기와 이해검사가 모두 끝나면, 글자가 없는 그림책을 제시해 아동의 발화자료를 수집하였다. 예비실험에서 정상아동을 대상으로 놀이와 글자가 없는 그림책을 이용해 자발화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 두 방법간 어휘다양도(TNW, NDW, Verb TNW, Verb NDW)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발화 수집 시, 검사자가 처음에 아동에게 그림책을 보여주며 2-3문장 정도를 이야기해 모델링을 제시한 후, 이야기를 산출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림책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두 제시하여, 아동들이 동일한 자극을 받도록 하였다. 발화 산출 중, 단답식 대답을 유도할 수 있는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하였다.

아동의 전체반응을 녹음기(SONY, TCM 400)로 녹음하였으며, 이름대기와 이해 검사에 대해선 검사자가 녹음과 동시에 기록지에 기록하였다.

## 다. 자료 분석

### (1) 동사 이름대기의 오반응 빈도

목표어가 동사이므로 목표어의 어간을 포함하여 산출하면, 정반응으로 간주하였다. 오반응 빈도는 목표어에 대한 이해여부를 고려하여 이해검사에선 정반응을 하였지만, 이름대기 검사에서 오반응한 빈도를 측정하였다. 오류유형 분석 시, ‘바느질하다(깨매다)→꼬매다, 꽃다→꼬바요’라고 반응하였던 경우, 표준어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성인의 경우에도 많이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정반응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내려가다→내려오다’라고 반응하였던 경우, 성인도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예가 있었으며(10명의 성인에게 검사결과, 3명이 ‘내려오다’로 반응), 아동이 두 단어 간의 의미적 차이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반응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목표어가 동사이므로 명사 이름대기와 달리, 대등어로 반응할 경우 정반응으로 처리하였다(부록 5).

### (2) 동사 이름대기의 오류유형 분석

오류유형의 분석기준은 선행연구인 김영태 등<sup>4</sup>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수정하였다(부록 2). 이 분석기준은 McGregor 등<sup>5</sup>과 German<sup>25</sup>이 제시한 분석기준을 참고로 하여 구성하였으며, 상위범주 아래에 하위범주가 있다. 그러나, 분석은 상위범주만을 기준으로 처리하였다.

### (3) 어휘다양도 분석

이야기 상황을 통해 수집한 아동발화를 검사 실시 후 2일 이내에 전사하였으며, 완전 이해가능하고 문법성을 갖춘 연속발화를 문장 단위로 분석하였다. 발화전사 및 분석 기준, 낱말분류 기준(부록 3 및 부록 4)은 김영태<sup>17</sup>의 구분방법을 참고로 하였다. 낱말의 분류 중 자립성이 없는 조사를 제외하였으며, 김영태<sup>21</sup>의 어휘다양도 분석방법을 참고해 어휘 다양도(TNW, NDW, Verb TNW, Verb NDW)를 산출하였다.

#### 라. 신뢰도 분석

전체 자료의 10%에 해당하는 자료를 임의로 선택한 뒤, 언어병리학을 전공하고 임상에 있는 언어치료사에게 분석방법을 훈련시킨 후 재분석하게 하였다. 검사자간의 이름대기의 오반응 빈도, 오류유형의 분류, 발화의 구분, 어휘 다양도의 분석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이름대기의 오반응 빈도에 있어서는 100%, 이름대기의 오류유형에 있어서는 93.2%, 발화의 구분에 있어서는 94.7%, 어휘다양도의 분석에 있어서는 96.6%의 신뢰도가 각각 산출되었다.

#### 마. 통계 분석

SPSS 통계 프로그램(version 12.0)을 사용하여 통계적 검증을 하였다. 연령과 성별에 따른 이름대기의 오반응 빈도와 오류유형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분산분석(two-way 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하였다. 이름대기 총점과 어휘 다양도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 Ⅲ. 결 과

#### 1. 동사 이름대기 특성

##### 가. 동사 이름대기의 오반응 빈도

###### (1) 연령 군에 따른 동사 이름대기의 오반응 빈도

3세와 5세 집단을 대상으로 연령에 따른 오반응 빈도를 알아본 결과, 3세는 13.6개(27.3%), 5세는 9.8개(19.5%)로 나타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동사 이름대기의 오반응 빈도가 감소되었다(표 3). 이원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5세가 3세보다 오반응 빈도가 유의하게 적었다(표 4)( $t= 3.2, p < 0.05$ ).

###### (2) 성별 군에 따른 동사 이름대기의 오반응 빈도

성별 군에 따른 오반응 빈도를 알아본 결과, 3세 집단은 오반응 빈도가 남자 군에서 13.5개(27.1%), 여자 군에서 13.7개(27.5%)로 나타났으며, 5세 집단은 오반응 빈도가 남자 군이 9.4개(18.8%), 여자 군이 10.1개(20.3%)로 나타나서 3세와 5세 두 집단은 오반응 빈도가 비슷하였다(표 3). 이원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3세 및 5세 모두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표 4).

표 3.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이름대기의 오반응 빈도

연령	남(n=15)	여(n=15)	계
3세	13.53±5.42 (27.06%)	13.73±4.93 (27.46%)	13.63±5.09 (27.26%)
5세	9.40±4.97 (18.80%)	10.13±3.16 (20.26%)	9.77±4.11 (19.54%)

값은 평균±표준편차, ( ) 안의 값은 오반응 비율

표 4 .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이름대기 오반응 빈도의 차이

	자유도	F값	P-value
연령	1	10.145	0.002*
성별	1	0.148	0.702
성별*연령	1	0.048	0.827

\*p< 0.05

## 나. 동사 이룸대기의 오류유형

### (1) 연령 군에 따른 오류유형 점수 및 출현율

#### (가) 오류유형의 점수

3세와 5세에서 산출된 오류반응은 6개의 오류유형(NR, DK, 음운적 오류, 구문적 오류, 시각적 오류, 의미적 오류)으로 나뉘어 분석하였다(표 5).

표 5. 연령에 따른 오류유형의 점수 분포

오류유형 \ 연령	3세	5세	전체
NR <sup>1</sup>	0.63±1.16	0.03±0.18	0.33±0.88
DK <sup>2</sup>	1.53±3.29	0.60±1.27	1.07±2.51
음운적 오류	0.23±0.56	0.07±0.37	0.15±0.48
구문적 오류	3.43±3.04	2.20±1.24	2.82±2.38
시각적 오류	5.23±2.56	3.63±2.04	4.43±2.43
의미적 오류	1.90±1.56	2.37±1.71	2.13±1.64

값은 평균±표준편차

<sup>1</sup>NR: No response, <sup>2</sup>DK: Don't know.

3세와 5세 집단을 대상으로 연령에 따른 오류유형을 알아본 결과, 3세가 5세보다 DK, NR, 음운적 오류, 구문적 오류, 시각적 오류 등이 많이 나타났으며, 5세가 3세보다 의미적 오류가 많이 나타났다(표 5). 이원분산 분석결과, 3세와 5세는 연령 간에 오류유형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났으며(표 6), NR, 구문적 오류, 시각적 오류 등( $p < 0.05$ )의 오류범주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7).

**표 6.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오류유형의 차이**

	자유도	F값	P-value
연령	3	4.441	0.001*
성별	1	0.579	0.745
성별*연령	3	0.792	0.581

\* $p < 0.05$

**표 7. 연령에 따른 오류유형의 분산분석**

오류유형	자유도	F값	P-value
NR <sup>1</sup>	1	7.636	0.008*
DK <sup>2</sup>	1	2.051	0.158
음운적 오류	1	1.786	0.187
구문적 오류	1	4.253	0.044*
시각적 오류	1	6.982	0.011*
의미적 오류	1	1.213	0.275

<sup>1</sup>NR: No response, <sup>2</sup>DK: Don't know.

\* $p < 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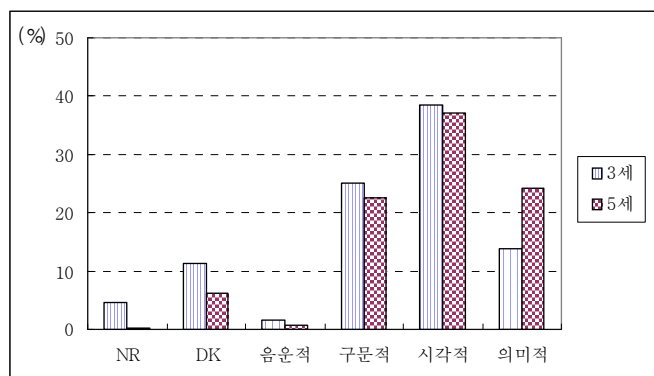
**(나) 오류유형의 출현율**

오류유형의 출현율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시각적 오류, 구문적 오류, 의미적 오류, DK, NR, 음운적 오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세 집단은 시각적 오류, 구문적 오류, 의미적 오류, DK, NR, 음운적 오류 순으로 나타났으며, 5세는 시각적 오류, 의미적 오류, 구문적 오류, DK, 음운적 오류, NR 순으로 나타났다(표 8, 그림 1).

**표 8. 연령에 따른 오류유형의 출현율**

오류유형 \ 연령	3세	5세	전 체
NR <sup>1</sup>	4.62%	0.30%	2.82%
DK <sup>2</sup>	11.23%	6.14%	9.10%
음운적 오류	1.68%	0.72%	1.28%
구문적 오류	25.12%	22.52%	24.06%
시각적 오류	38.37%	37.15%	37.86%
의미적 오류	13.94%	24.26%	18.25%

<sup>1</sup>NR: No response, <sup>2</sup>DK: Don't know.



**그림 1. 연령에 따른 오류유형의 출현율**

NR: No response, DK: Don't know.

## (2) 두 연령 군에서 성별 군에 따른 오류유형

3세와 5세에서 성별 군에 따라 오류유형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 분석한 결과, 3세와 5세는 상위범주인 NR, DK, 음운적 오류, 구문적 오류, 시각적 오류, 의미적 오류 등 모든 오류범주에서 성별 군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6). 또한,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표 6).

## 2. 동사 이름대기의 오반응 빈도와 어휘다양도간의 상관관계

동사 이름대기의 오반응 빈도와 어휘다양도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TNW, NDW, Verb TNW, Verb NDW는 모두 이름대기의 오반응 빈도와 유의하게 나타났다( $p < 0.05$ ).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Verb NDW였으며, 그 다음 TNW, NDW, Verb TNW 순으로 나타났다. 산출된 상관계수를 근거로 하여 상관정도를 알아본 결과, Verb NDW는 -0.4, TNW, NDW, Verb TNW는 -0.3으로 상관관계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표 9).

표 9. 이름대기 오반응 빈도와 어휘다양도간의 상관관계

	NDW <sup>1</sup>	TNW <sup>2</sup>	Verb NDW <sup>3</sup>	Verb TNW <sup>4</sup>
이름대기의 오반응 빈도	-0.291*	-0.311*	-0.376*	-0.256*

값은 상관계수

<sup>1</sup>NDW: Number of Differential Words

<sup>2</sup>TNW: Total Number of Words

<sup>3</sup>Verb NDW: Number of Differential Words of Verb

<sup>4</sup>Verb TNW: Total Number of Words of Verb

\* $p < 0.05$

## IV.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생활연령이 만 3세와 만 5세인 정상아동을 대상으로, 검사어휘의 이해가 가능하였지만 이름대기 검사에서 오반응한 문항에 대해, 동사 이름대기의 특성을 살펴보고, 동사 이름대기 점수와 자발화에서 분석한 어휘다양도와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검사어휘의 이해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이름대기 검사만의 결과를 연구한 김유정<sup>7</sup>의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라 명사의 이름대기 능력, 즉 표현어휘력이 증진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정상아동 2-5세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2세는 12.0%, 3세는 27.7%, 4세는 55.3%, 5세는 62.0%의 정확도를 나타내서,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K-BNT를 이용하여 정상아동 3세와 6세의 명사 이름대기 특성을 연구한 김향희 등<sup>8</sup>의 연구에서도 3세는 13.8개(23.0%), 6세는 31.7개(52.8%)의 정확도를 나타내, 역시 연령에 따라 이름대기 능력이 증진됨을 증명하였다. 정은실<sup>13</sup>은 본 연구의 수정 전 검사도구를 이용해 정상아동 4세, 6세의 명사, 동사 이름대기 특성을 연구하였다. 명사 이름대기에서 4세는 54.5%, 6세는 80.8%의 정확도를 나타냈고, 동사 이름대기에서 4세는 58.5%, 6세는 77.6%의 정확도를 나타내 역시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명사 이름대기와 마찬가지로, 동사 이름대기도 아동의 언어측면에 대한 발달적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정상아동 만 3세와 만 5세를 대상으로, 이름대기 오반응 빈도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두 집단 모두에서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연령에 상관없이 성별에 따른 어휘능력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명사 이름대기의 특성을 연구한 김유정<sup>7</sup>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김향희 등<sup>8</sup>의 연구에서는 3세 집단의 경우, 남아가 여아보다 유의하게 낮은 이름대기 능력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김유정<sup>7</sup>은 3, 4, 5세 아동의 회화에 나타난 어휘조사와 한국 아동의 어휘발달 연구를 참고로 문



항을 선정하였고, 본 연구는 김유정<sup>7</sup>의 연구, MCDI-K,<sup>29</sup> KCLA,<sup>30</sup> 그림 동작어 사전<sup>31</sup>의 자료를 참조하여 아동에게 적합한 검사어휘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2세 이전에는 여아의 평균 어휘수가 남아에 비해 1.5배 정도 많다가 그 차이가 점차 감소해 28-30개월이 되면 여아의 평균 어휘 수와 남아의 평균 어휘가 1.15배 정도로 차이가 거의 없어진다는 Fenson 등<sup>32</sup>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본 연구대상이 만 3세와 만 5세였기 때문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검사어휘의 이해가 가능하였지만, 이름대기 검사에서 오반응을 보인 오류유형의 전체적인 출현순서와 비율을 살펴본 결과, 시각적 오류(37.9%), 구문적 오류(24.1%), 의미적 오류(18.3%), DK(9.1%), NR(2.8%), 음운적 오류(1.3%) 순으로 나타났다.

이윤경<sup>33</sup>은 단순 언어장애 아동과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정상아동,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정상아동을 대상으로 이해여부에 따른 명사 이름대기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검사어휘의 이해가 가능하였으나 이름대기에서 오류를 보인 오류유형이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정상아동과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정상아동 모두에서 의미적 오류, 시각적 오류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는 이윤경<sup>33</sup>의 연구에서 의미적 오류에 속했던 대동어를 정반응으로, 에두르기를 구문적 오류로 분류하였으며, 동사 이름대기가 명사 이름대기에 비해 시각적 오류의 출현이 더 높은 특성<sup>13</sup>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본 연구는 동사 이름대기의 연구라는 점을 감안하여 구문적 오류를 상위범주로 제시하였으며, 대동사 이용한 오류를 포함하였다. 정은실<sup>13</sup>은 동사 이름대기에서 구문적 오류를 상위범주로 분류하지 않았지만, 의미적 오류, 시각적 오류, 기타 오류의 하위범주에서 에두르기와 대동사를 분석하였다. 연령 별로 그 오류들의 합계를 살펴보면, 4세는 3.9개(대동사: 1.1개, 에두르기: 2.8개), 6세는 2.8개(대동사: 1.1개, 에두르기: 1.7개)로 나타나서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즉,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구문적 오류가 적어져, 발달적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동사 이름대기와 자발화에서 분석한 어휘다양도 간에 상관관계가 유의한지 알아보고, 어휘다양도 척도인 TNW, NDW, Verb NDW, Verb TNW와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생활연령이 2세 8개월부터 13세 3개월인 정상아동을 대상으로 생활연령과 NDW와 TNW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Miller<sup>16</sup>는 NDW와 TNW가 생활연령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희정<sup>15</sup>은 언어발달 장애아동과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정상아동,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정상아동 등을 대상으로 NDW, TNW, TTR간의 유의성을 알아본 결과, NDW, TNW만이 세 집단간의 차이를 변별할 수 있는 척도임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자발화의 표현 언어능력을 반영하는 척도로 유의미한 TNW, NDW와 동사 이름대기 점수와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다는 것은 동사 이름대기로 자발화 상의 표현 언어능력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국내·외에 이름대기와 어휘다양도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연구는 없지만, 표현 언어능력의 한 척도인 평균발화길기와 이름대기 간의 관계를 생활연령과 비교하여 알아본 유연미<sup>34</sup>는 이름대기 점수가 생활연령보다 평균발화길기와 더욱 높은 상관관계를 가져서, 표현 언어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더 경제적임을 보고하였다. 이를 근거로 한다면, 이름대기는 어휘다양도 뿐만 아니라, 평균 발화길기와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져, 의미적, 구문적 측면의 표현 언어능력을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지역의 만 3세와 만 5세인 정상아동 60명을 대상으로 일회적인 실험을 통해 분석하여 보고하였다. 따라서, 지역과 대상자 수, 장애아동,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고려한 종단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학령기 이후 아동에 대한 동사 이름대기의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동사 이름대기 검사도구는 명사 이름대기와 달리, 움직이는 동작을 나타내야 하므로, 검사도구가 한 장의 그림카드일 경우엔 동작의 특성을 시각적으로 적절히 표현해야만 한다. 본 검사 도구에서 아동들이 검사어휘를 이해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이름대기에서 오반응이 특히 많이 나타난 항목들이 있는데(예: 높다→자

다, 쌓다→만들다, 묶다→싸다), 이것은 단어의 특성을 적절히 표현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동작을 더욱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연속 그림카드나 비디오 동영상으로 동사 이름대기의 검사도구를 제작하여 아동의 수행력을 알아보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오류유형 분석 시, 평가자의 주관적 개입을 줄이기 위해, 선행 연구를 참고로 하여 동사 이름대기의 오류유형을 수정하였다. 하지만, 특히 시각적 오류와 의미적 오류의 분류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이름대기의 오류유형 기준을 수정하여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동사의 이름대기 점수와 어휘다양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보고하였다. 그러나, 그림책을 1권만 이용해 아동발화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한 아동 당 발화 수가 평균 20-30개로 다소 적었다. 발화수를 50발화 혹은 100발화로 하여 동사의 이름대기와 어휘다양도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어에서는 한자어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다’형 동사를 많이 사용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검사 도구에서는 ‘하다’형 동사가 소수, 즉 8개만 포함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V. 결 론

생활연령이 만 3세와 만 5세인 정상아동 60명을 대상으로 동사 이룸대기의 특성과 어휘다양도와 동사 이룸대기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동사 이룸대기의 능력이 증진되고, 성별에 따른 이룸대기 능력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검사어휘의 이해가 가능한 오반응은 시각적 오류, 구문적 오류, 의미적 오류가 주로 나타나고, 3세가 5세보다 NR, 구문적 오류, 시각적 오류 등이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동사 이룸대기의 점수와 자발화에서 분석한 어휘다양도 간에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나서, 동사 이룸대기로 자발화 상의 의미발달 정도를 예측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동사 이룸대기로 언어능력의 발달적 특성을 알 수 있으며, 자발화에서의 의미발달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는 우리나라 정상아동의 경우 동사 이룸대기로 연령에 따른 언어능력의 발달을 살펴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동사 이룸대기로 간편하게 자발화에서의 의미발달 정도를 추측하여 진단 준거 및 치료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명사 이룸대기 검사와 마찬가지로, 동사 이룸대기 검사도 언어 발달장애의 조기 진단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지만, 연령, 지역, 부모의 교육정도, 또는 사회경제적 위치 등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많은 수의 아동을 대상으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 참 고 문 헌

- 1) Freid-Oken M. Qualitative examination of children's naming skill through test adaptations. Lang Speech Hear Serv Sch 1987;18:206-216.
- 2) Nippold MA. The nature of normal and disordered word finding in children and adolescents. Top Lang Disord 1992;13:1-14.
- 3) German D. Diagnosis of word-finding disorders in children with learning disabilities. J Learn Disabil 1984;17:353-358.
- 4) 이윤경, 김영태. 단순 언어장애아동의 낱말찾기 특성. 언어청각장애연구 2002; 7(1):65-80.
- 5) McGregor KK. The nature of word-finding errors of preschoolers with and without word-finding deficits. J Speech Hear Res 1997;40(6):1232-1244.
- 6) Levelt W. Lexical access in speech production. Cambridge(MA): Blackwell; 1991.
- 7) 김유정. 학령 전 정상 아동의 이름대기 발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 8) 김향희, 이경숙, 방영임, 유연미. 아동 한국판 보스톤 이름대기 검사.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가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3;25-31.
- 9) Menyuk P, Liebergott J, Schultz M. Early language development in full-term and premature infants. Hillsdale(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1995.
- 10) 이수향.  $1\frac{1}{2}$ -2세 정상아동의 용언발달 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11) 배소영. 한국아동의 언어발달: 진단의 일차적 자료. 언어치료 전문요원교육 1995;18-35.
- 12) 조진숙. 3세에서 6세 아동의 발달에 따른 동사어휘특성 및 빈도 연구. 나사렛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 13) 정은실. 4세와 6세 정상아동의 명사, 동사 이름대기 능력. 한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 14) Conti-Ramsden G, Jones M. Verb use in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J Speech Hear Res 1997;40:1298-1313.
- 15) 이희정. 정상 아동과 언어발달지체 아동의 발화길이와 어휘다양도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9.
- 16) Miller JF, Chapman RS. The relation between age and mean length of utterance on morphemes. J Speech Hear Res 1981;24:154-161.
- 17) 김영태. 한국 2-4세 아동의 발화길이에 관한 기초연구. 말-언어장애연구 1997;2:5-26.
- 18) Klee T. Developmental and diagnostic characteristics of quantitative measures of children's language production. Top Lang Disord 1992;12(2):28-41.
- 19) Watkins RV, Kelly DJ, Harbors HM, Hollis W. Measuring children's lexical diversity: differentiating typical and impaired language learners. J Speech Hear Res 1995;38(6):1349-1355.
- 20) 김지은, 김영태. 고기능 자폐아동과 정상아동의 어휘다양도 비교 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2002;7(1):13-29.
- 21) 김영태. 아동 언어장애의 진단 및 치료. 서울: 학지사; 2002.
- 22) 이연섭, 권경안, 정인실. 한국 아동의 어휘발달 연구(I).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80.
- 23) 주정일. 언어의 발달. 아동발달학. 서울: 교문사; 1982.
- 24) 김영태.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 서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2000.
- 25) German DJ. Test of Word Finding(manual). Austin(TX): Pro-ed; 2000.
- 26) 김영태, 장혜성, 임선숙, 백현정. 그림어휘력검사. 서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1995.
- 27) 홍경은. 글 없는 그림책 읽기 활동이 유아의 이야기 구성능력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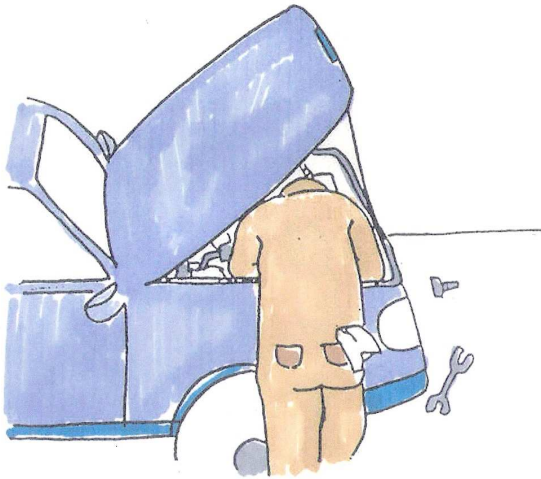
- 28) Brinton T. Deep in the forest. NY: Dutton Children's Books; 1992.
- 29) 최은희, 배소영, 서상규. 1;1-2;6세 한국아동의 표현 어휘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2001;6(1):1-16.
- 30) 배소영. 한국어 발화분석 2.0(KCLA 2.0): 활용을 위한 지침서. 서울: 파라다이스 복지재단; 2000.
- 31) 권은경, 김희영, 김성화. 그림 동작어 사전. 서울: 학지사; 2002.
- 32) Fenson L, Dale P, Reznick S, Bates E, Hartung J. MacArthur communicative development inventories: user's guide and technical manual. San Diego(CA): Singular Publishing Group, Inc; 1993.
- 33) 이윤경. 단순 언어장애아동의 낱말찾기 특성: 어휘산출과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2.
- 34) 유연미. 3, 4세 정상아동의 표현언어 발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부록 1. 이름대기 검사도구

감다



고치다





## 부록 2. 동사 오류분석 기준

구분		정의
NR (No response)		그림을 제시한 후 5초가 경과될 때까지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무반응)
DK (Don't know)		'모른다'고 응답하는 경우
음운적 오류	음소대치	목표동사를 구성하는 음소를 다른 음소로 대치하는 경우 예) 풀다→불다
	형태 음운적	목표동사에 '으'를 삽입하는 경우 예) 앉다→앉으다
	음운유사 낱말대치	음소적으로 유사한 다른 실제 동사로 대치하는 경우 예) 재다→대다
구문적 오류	대동사를 이용	목표동사의 특성을 대동사를 포함하여 설명하는 경우 예) 쌓다→이렇게 해요, 닦다→치카치카 해요
	에두르기	목표동사의 특성을 여러 낱말로 설명 혹은 묘사한 경우 예) 진찰하다→청진기 대 봐
시각적 오류	대치	목표동사의 행동과 시각적으로 유사한 동사로 대치하는 경우 예) 눕다→자다
	오류	그림을 보고 나름대로 해석하여 잘못 말하는 경우 예) 줍다→뒹다
	부분대치	목표동사를 묘사한 그림의 일부분을 지칭하는 낱말로 대치하는 경우 예) 다리다/다림질하다→다리미
의미적 오류	일반적 개념어	목표 낱말의 의미보다 포괄적인 개념을 지닌 상위 범주의 낱말로 대치하여 반응하는 경우 예) 수영하다→운동하다, 감다→씻다
	유사범주	의미적으로 같은 범주에 속하는 다른 낱말로 표현하는 경우 예) 끊어지다→찢어지다

### 부록 3. 발화의 구분원칙

1. 1문장 1발화를 원칙으로 한다. 운율의 변화, 주제의 변화가 있을 때는 발화수를 나눈다.
2. 같은 말이라도 다른 상황이나 문맥에서 표현되거나, 새로운 의미로 표현되었을 때에는 다른 발화로 취급한다.
3. 아동이 스스로 수정하거나 새로운 의미의 첨가 없이 낱말이나 구를 반복할 때는 한 문장 안에 넣되 ( )로 구분하고 분석에서 제외한다.
4. 아이가 습관적으로(샘플자료의 10% 이상의 발화) 사용하는 간투어는 분석에서 제외시킨다.
5. ‘아’, ‘오’ 등의 감탄하는 소리나 문장을 이어가기 위한 무의미 소리들(예: ‘음’, ‘어’...등의 말이음)은 분석에서 제외시킨다.
6. 노래하기, 숫자세기 등과 같이 외워진 자동구어는 발화로 구분하지 않고 분석에서 제외시킨다. 그러나, 발화 속에 이러한 자동구어가 내포되어 있을 경우에는 하나의 낱말로 보고 분석에 포함시킨다.
7. 한 발화 내에서 똑같이 반복한 발화는 한 번만 분석한다.

#### 부록 4. 낱말의 구분 원칙

1. 원칙적으로 표준 국어문법에서 낱말로 인정하는 것을 따른다.
2. 표준 국어문법과 달리 조사를 개별낱말로 취급하지 않는다.
3. 보조용언의 경우 일부는 본용언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띄어쓰기에 의해 구분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하나의 낱말로 인정한다.
4. 합성어의 경우 한 낱말로 취급하나, 발화자료 내에서 각각을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별 낱말로 인정할 수도 있다. 복합동사의 경우, 확실하게 두 개의 어절로 나뉘어 지는 경우라면 개별낱말로 인정할 수 있다. ‘표준국어 대사전’을 근거로 하여 합성어와 복합동사로 분류한다.
5. 발화 내용 중 자기 교정이나 전체 반복 및 부분 반복된 것은 ( ) 속에 넣어 과대평가 되지 않도록 한다.
6. 아동 말에서 흔한 ‘아, 예, 있잖아요, 근데요’ 등의 간투사는 낱말로 인정하지 않으나, ‘어, 그래’ 등이 의미 있게 사용되었을 때는 낱말로 인정한다.
7. 아동이 신조어를 만들 경우 목표어에 해당하는 한 낱말로만 인정한다.
8. 의성어나 의태어가 단순 발성과 분명히 구분될 때만 낱말로 인정한다.
9. ‘~해 가지고, ~가지고’의 경우, 아동이 어미에 습관적으로 붙여 쓰는 경우에는 분절된 형태소로 인정하지만, 하나의 단어로 취급한다.
10. 수세기가 발화 내에서 일정한 뜻을 가질 경우에는 한 낱말로 취급한다. 또 수세기에서 마지막 수만 의미를 지니는 경우, 나머지는 ( ) 안에 묶는다.

부록 5. 정반응 처리사항

목표어	연령	3세	5세
내려가다		내려오다(3)	내려오다(8)
바느질하다(꿰매다)		꼬매다(1)	꼬매다(1)
꽃다		꼬바요(1)	
싸우다		다투다(1)	
뒹다		양치하다(2)	양치질하다(4)
자다			잠이 들다(1)
진찰하다			진료하다(1)
수영하다		헤엄치다(1)	헤엄치다(2)
묶다			매다(1)
꽃다		끼우다(2)	
청소하다			청소기 돌리다(2) 청소기로 밀다(2)

( )안의 값은 반응한 아동 수

## **Abstract**

Relationship between verb naming and lexical diversity  
of 3- and 5-year old normally developing children

Mee Hyun Lee

*Graduate Program in Speech Pathology,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ang Kyu Seo)

Naming, as one of the expressive language functions, indicates the ability to identify an object with an appropriate word or term. Since children with language impairment commonly name objects erroneously, studies on children's naming skills have been steadily conducted to understand the mechanism associated with language impairment. In Korean language, like nouns, verbs can be used as a parameter for measuring children's language development. Although there have been enough studies on noun naming in Korea, the studies on verb naming with consideration of whether or not children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verbs are lack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characteristics involved in verb naming errors in 60 normal children aged in 3- and 5- year olds based on age and sex and the correlations between naming error frequency and lexical diversity. The concept of the verb naming errors can be that children fail to name a correct verb although they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verb.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older the child, the lower error frequency in verb naming: 27.3% in 3-year olds and 19.5% in 5-year olds. Accuracy of verb naming in 3- and 5- year olds was not influenced by sex.
2. The types of verb naming error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age and were not influenced by sex. By error type, visual error, syntactic error, and semantic error in 3- and 5- year olds were dominant.
3. The correlations between error frequency of verb naming and lexical diversity (Total Number of Words, Number of Differential Words, Total Number of Words of Verb, Number of Differential Words of Verb) were significant. Therefore, the more lexical diversity, the lower error frequency.

In conclusion, accuracy of verb naming in 3- and 5- year olds was influenced by age. Error analysis was meaningful to understand qualitative aspects about naming error. Also, the correlation analysis showed that naming accuracy is highly correlated with lexical diversity. Through this analysis, we can conclude that verb naming ability is a significant predictor of language disability in 3- and 5- year olds.

---

Key words: 3- and 5- year olds, verb naming, error type, lexical diversity